

##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 배경과 전망

정재욱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김예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kimyj@kiep.go.kr, Tel: 044-414-1116)

## 차 례

1. 주마 前 대통령의 퇴진 경과
2. 주마 前 대통령 퇴진의 주요 원인
3. 주마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4.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과 당면과제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前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와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인 사퇴 요구를 받은 끝에 지난 2월 14일,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진 사퇴함.
  - 2009년 주마 前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불신임 투표와 두 차례의 탄핵 투표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인 ANC의 비호 아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사저 증축에 국고를 유용한 혐의 외에도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예산을 유용하고 인 사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지도가 급락하여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퇴진 요구를 받았음.
- ▶ BRICS의 일원으로 성장하던 남아공 경제는 주마 前 대통령 임기 9년간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속에 고착화된 부패와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빠짐.
  - 남아공의 최근 성장률은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9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7%에 달함.
  - 또한 주마 前 대통령은 친시장정책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각료를 해임하고 측근을 등용하여 금융시장 각종 지수가 폭락하고 남아공 국채의 신용등급이 17년 만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었음.
- ▶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마포사 前 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을 양대 목표로 내걸음.
  - 시장의 기대 속에 라마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부패인사 척결, 증세, 공기업 개혁, 토지 개혁 등 당면 문제가 산적해 있고 ANC가 내부 분열된 가운데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개혁이 쉽지 않음.
  - 중장기적 경제개혁 없이 경제회복과 불평등 해소 과제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번 라마포사 정부 출범은 남아공 민주주의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제2경제대국이자 아프리카의 유일한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단기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임.
  -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인 남아공 경제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이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철강, 전력 분야 등 협력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남아공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

# 1. 주마 前 대통령의 퇴진 경과

■ 2018년 2월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Jacob Zuma) 前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와 극심한 경제 위기로 인해 지속적인 퇴진 요구를 받은 끝에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진 사퇴함.

- 주마 前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에 예정되었던 2018년도 연례 국정연설을 앞두고 2009년 취임 후 여덟 번째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중에도 사퇴를 거부했으나, 본인이 속한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국가집행위원회(NEC: 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그를 공직에서 해임 하자 다음날 전격 사임함.
  - 2009년 주마 前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불신임 투표와 두 차례의 탄핵 투표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인 ANC의 비호 아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
  - 2017년 12월 18일, ANC 전당대회에서 주마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직접적인 사임 압박을 받음.
  - 주마 前 대통령은 여당의 사임 요구에 대해 3~6개월 내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ANC 신임지도부는 정세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마를 공직에서 해임함.
- 사퇴 다음날인 2월 15일,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의회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남아공의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sup>1)</sup>

그림 1. 주마 前 대통령의 퇴진 경과

| 2017.12.18                          |   | 2018.2.1.                                   |                                     | 2018.2.4.  |                 | 2018.2.7. |  | 2018.2.12. |  | 2018.2.14. |  |
|-------------------------------------|---|---|-------------------------------------|--|-----------------|-----------|--|------------|--|------------|--|
| 2018.1.                             | 2018.2.2.                                     | 2018.2.6.                                   | 2018.2.9.                           | 2018.2.13.   | 2018.2.15.      | NEC회의 개최  |  |            |  |            |  |
| 라마포사가 ANC의 신임 대표로 당선                | 국회의장이 국정 연설을 예정대로 2월 7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ANC의 최고위원 6명이 주마와 만나 퇴진을 논의하지만 주마는 사임을 거부   | 야권에서 주마의 사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 라마포사와 마가솔레가 주마에게 48시간 내에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서 해임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달 | 주마 대통령 공식적으로 사임 |           |  |            |  |            |  |
| 주마의 퇴진과 라마포사가 국정연설을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 | EFF*가 제안한 주마 대통령의 불신임투표를 2월 22일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국회의장이 국정연설 연기를 발표                           | 라마포사를 포함한 ANC 최고위원 6명 모두 공식행사 참석 취소 | ANC에서 주마에게 해임장 전달  | 라마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  |           |  |            |  |            |  |
|                                     |   | 라마포사, 주마 및 ANC 사무총장인 마가솔레가 다시 만나 주마의 퇴진을 논의 |                                     |  |                 |           |  |            |  |            |  |

주: \* EFF는 야당인 경제자유전사(Economic Freedom Fighters)를 의미함.

자료: Campbell, John(2018. 2. 13), "Timeline: Zuma's Departure Draws Near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log/zumas-departure-draws-nearer>(검색일: 2018. 3. 4)를 참고하여 작성.

1) 시릴 라마포사는 남아공의 흑인차별정책(Apartheid)이 철폐되고 1994년 새로운 민주 헌법이 제정된 이후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남아공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통상 여당의 당대표가 맡게 됨.

## 2. 주마 前 대통령 퇴진의 주요 원인

■ 주마 前 대통령은 2009년 집권 이전부터 오랜 정치생활 동안 부정부패, 정경유착 및 성폭행 등의 다양한 개인 비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음.

- 2005년 지인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다음 해 무혐의로 판결을 받고 피해자는 망명을 신청한 바 있음.
- 2017년 10월 남아공의 항소대법원은 주마 집권 직전인 2009년 4월에 이루어졌던 주마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남아공 검찰의 공소 취하 결정이 부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재조사를 명령함.
  - 2009년 4월 남아공 검찰은 1990년대 후반 약 300억 랜드(약 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무기 도입건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등 주마 관련 783건의 각종 공갈·사기·돈세탁·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18개 기소 건의 공소를 취하하며 “기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음.
- 2016년에는 주마 대통령 사저 증축과 관련된 국고 유용 혐의와 인도계 재벌 굽타 일가와와의 정경유착형 비리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여당 ANC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음.
  - 2014년 남아공 감사원이 주마 대통령 사저의 증축 및 보수에 사용된 약 2억 5천만 랜드(당시 환율로 약 2,300만 달러)의 국고 중 수영장 등 경호 관련성이 없는 일부 시설에 대한 비용 환수를 결정하였으나 주마가 반납을 거부함.
  - 야당에서 고발한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헌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주마에게 재무부가 결정한 약 800만 랜드(당시 환율로 약 51만 달러)를 반납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됨.

■ 특히 주마 前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굽타 일가와 주마 前 대통령의 관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주마 정부 및 ANC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sup>2)</sup>

- 인도계 재벌 굽타 일가의 비선실세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굽타 일가의 결혼식 당시 하객들이 공군기지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이른바 굽타게이트(Guptagate)가 확산되었음.
  - 2013년 4월 굽타 일가의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을 태운 민간 전용기가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적절한 비자 확인 절차 없이 경찰의 호위를 받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굽타 일가는 정부의 내각 및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에도 개인 사업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남.<sup>3)</sup>
  - 즈와네(Mosebenzi Zwane) 前 광물자원부장관, 국영전력기업 에스콤(Eskom)의 경영진이었던 마티질라(Collin Matijila), 몰레페(Brian Molefe) 등 다수의 정부 관련 인사 임명에 굽타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남.<sup>4)</sup>

2) 인도 출신인 아들, 아제이 및 라제쉬 굽타 형제는 1990년대에 남아공에 정착, 저가 컴퓨터 판매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하였음. 1996년에 정치계 인사와 교류를 시작한 이후 주마 前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광산업, 농업 및 언론으로 사업을 확장함. 또한 주마의 아들, 딸 및 아내를 계열사 고위직에 채용하고 지분을 주는 등 주마 前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달러의 부를 축적함.

3) 주마 前 대통령은 임기에 총 11차례의 개각을 감행함.

- 특히 2015년 12월 굽타 일가가 추진하던 원자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반대하던 네네(Nhlanhla Nene) 前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경질 과정에서 조나스(Mcebisi Jonas) 당시 재무부 차관이 굽타 일가가 본인에게 네네의 후임으로 재무부장관직을 보장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향후 굽타 일가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함.<sup>5)</sup>
- 2016년 11월에는 주마 前 대통령과 굽타 일가 간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2017년 6월 주마 前 대통령 및 측근들과 굽타 일가 사이에 오간 10만여 건의 이메일이 굽타리크스(Guptaleaks)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면서 2010년에 67%였던 주마의 지지율이 2017년 11월에는 25%로 하락함.<sup>6)</sup>

#### ■ 주마 前 대통령과 굽타 일가의 정경유착은 정치뿐만 아니라 남아공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

- 재임 당시 시장의 신임을 받았던 경제전문가 네네와 고던 前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인해 남아공 환율과 주가가 급락함.
- 2015년 12월 9일, 네네 재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경제 비전문가이며 일개 평의원이었던 주마의 측근 반 루엔이 장관으로 임명되자 랜드화의 가치가 10% 이상 급락하고 국채의 수익률이 1.63pp 상승하는 등 당시 남아공 주식 및 국채 시장에서 420억 달러 가량의 가치가 증발함.<sup>7)</sup>
- 이 사건 이후 주마는 나흘 만에 고단(Pravin Gordhan)으로 재무부 장관을 교체함.
- 2017년 3월에는 주마 前 대통령이 영국 출장 중이던 고단 장관을 갑자기 본국으로 소환하고 조나스 재무부 차관과 함께 경질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랜드화의 가치가 8% 이상 하락함.<sup>8)</sup>

4) 남아공의 특수 경찰수사대인 호크스(Hawks)는 주마 前 대통령이 사임한 2월 14일 프리주(Free State) 낙농지원금에 대한 돈세탁 의혹과 관련하여 굽타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체포하였음. 특히 즈와네 前 광물자원부장관은 프리주 주지사 시절 정부로부터 낙농지원금을 유용하여 굽타 일가의 개인 비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됨. 즈와네는 광물자원부장관 재직 당시에도 굽타 일가 소유의 광산업체인 테게타(Tegeta)가 부당하게 광산을 매입하고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에 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주마 前 대통령의 아들인 두두자네 주마가 테게타의 고위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5) 주마 前 대통령은 임기 당시 7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립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네네와 고던 前 재무부 장관은 해당 사업이 정부 재정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준다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음. 네네는 본 사업을 '국가적 자살행위'라 비판하였으며 고단은 주마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였음. 굽타 일가는 원자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를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6) Loschky, Jay, and Julie Ray(2018. 2. 9), "In the News: Approval of South Africa's Zuma at All-Time Low," Gallup. <http://news.gallup.com/poll/226889/news-approval-south-africa-zuma-time-low.aspx>(검색일: 2018. 3. 7).

7) England, Andrew(2015. 12. 14), "Jacob Zuma in sudden U-turn over South Africa finance minister,"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6ad9820-a1d9-11e5-bc70-7ff6d4fd203a>(검색일: 2017. 3. 5.); BIZNews. 2016.01.11. "Zuma on Nenegate: Markets over-reacted to the firing. Rand tanks again." <https://www.biznews.com/leadership/2016/01/11/zuma-on-his-r500bn-blunder-markets-over-reacted-to-the-firing-of-nene/>(검색일: 2017. 3. 5).

8) Megaw, Nicholas(2017. 4. 1), "Rand, banks and bonds hit as Zuma fires Gordhan,"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46eff1ba-15dd-11e7-b0c1-37e417ee6c76>(검색일: 2018. 3. 5).

그림 2. 주마 前 대통령의 내각 변동에 따른 환율 변화

(단위: 랜드/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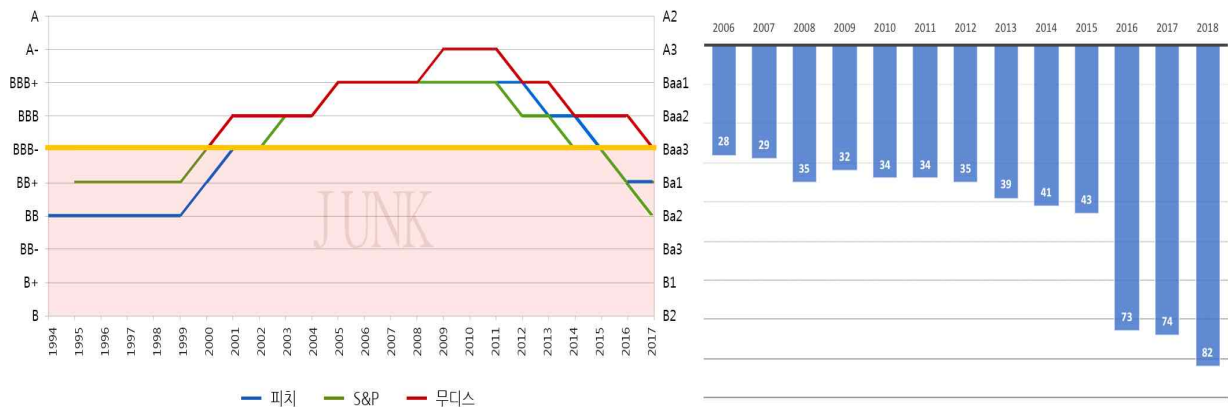
자료: Thompson Reuters Eikon(재인용), Joseph Cotterill(2017. 3. 31), "Zuma fires Gordon as Treasury chief as he reshuffles cabinet,"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a9f8006-1537-11e7-80f4-13e067d5072c>(검색일: 2018. 3. 2).

- 친시장정책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두 재무부장관의 해임으로 인해 2017년 4월 남아공 국채의 신용등급이 17년 만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었음.
- 고던 前 재무부장관을 해임한 직후인 2017년 4월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를 이유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남아공 외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로 강등하였으며, 11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도 투자부적격 단계로 강등하여 남아공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됨.
- 남아공의 2005년 기준 기업환경평가(2006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순위는 155개국 중 28위로 한국(당시 27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순위가 하락하여 최근 2017년 기준 보고서(2018 Report)에서는 190개국 중 82위에 위치함.

그림 3. 남아공의 국제신용등급 및 기업환경평가순위 변화

(단위: 국제신용등급)

(단위: 순위)



자료: Thompson Reuters Eikon.

자료: World Bank.

### 3. 주마 정부(2009~18)의 경제정책 평가

■ 남아공 경제는 주마 정부 임기(2009~18)에 제조업 둔화, 높은 실업률, 정부 부채 증가가 이어지는 중에도 대통령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하향세를 기록함.

- 남아공 경제는 한때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신흥국을 일컫는 BRICS의 'S'로 불릴 만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주마 前 대통령의 임기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한 차례의 역성장을 겪었으며 2016년 4/4분기 및 2017년 1/4분기에 각각 -0.3% 및 -0.7% 성장을 기록함.<sup>9)</sup>
- 남아공의 실업률은 주마 정부 9년간 계속 상승하여 2017년 4/4분기 기준 26.7%에 달하였으며 청년(15~34세)실업률은 38.6%, 비공식 흑인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음.<sup>10)</sup>
  -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흑인과 백인의 교육 수준 차이가 고착화된 이후 민주정부에서 그동안 GDP의 6% 이상을 교육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OECD 조사 대상 76개국 중 75위)<sup>11)</sup>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sup>12)</sup>
- 남아공의 공공부채는 주마 정부하에서 진행된 막대한 복지사업과 무분별한 공기업 지원으로 인해 집권 9년간 랜드화 기준 약 세 배가량 증가하여 부채 규모가 2017년 현재 GDP 대비 50.7%(2009년 당시 GDP의 약 30%)에 달함.
  -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부채는 GDP 대비 약 7%에 달해 지난해 기준 총정부지출의 약 13%가 공기업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사용됨.
  - 2018년 중기재정지출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에 따르면 공기업의 채무 관련 정부 지출이 2021년까지 연간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13)</sup>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식의 단기적 해법에 치중하다보니 공공부문 근로자가 약 130만 명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정부 지출의 약 35%를 차지함.
  - 빈곤율을 줄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마 정부의 지지층인 극빈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정부지원수급자가 약 1,700만 명에 이르러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경제성장은 저조한 가운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약세와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면서 2010년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어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의 물가상승 목표치인 3~6%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옴.

9) *Statistics South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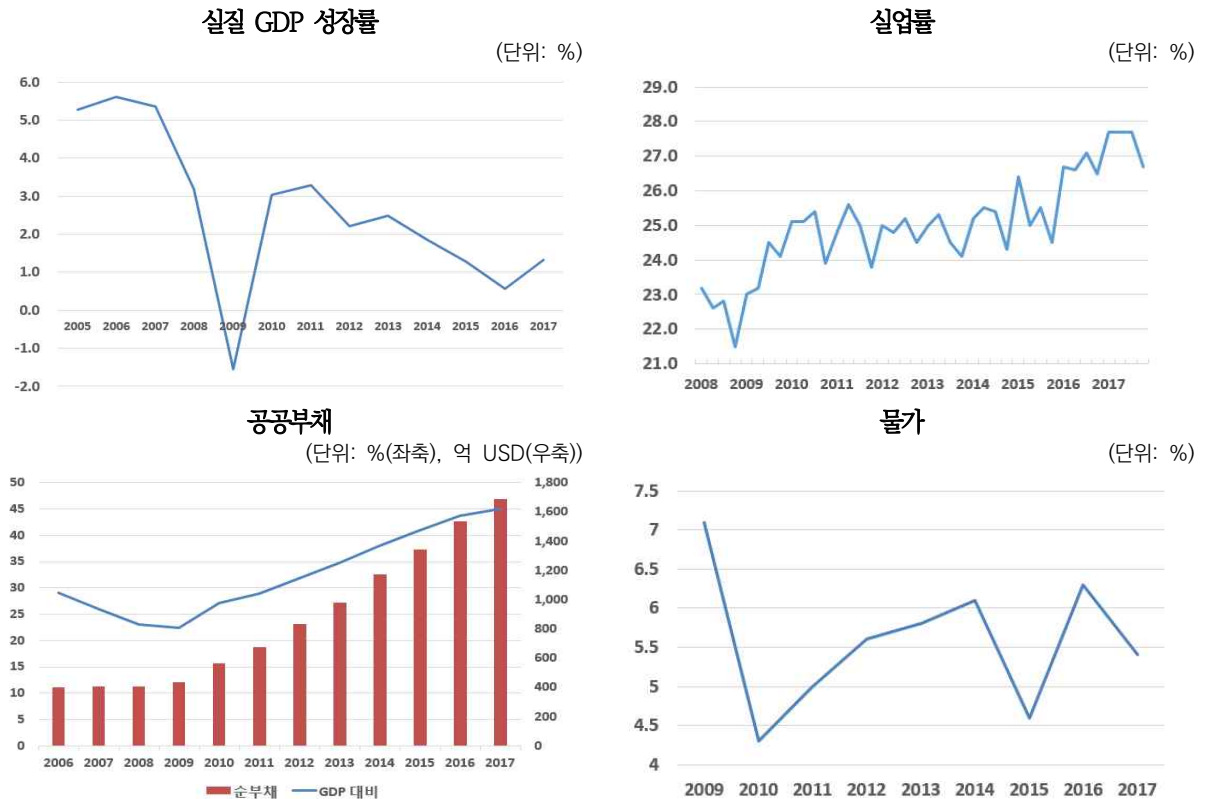
10) *Statistics South Africa*.

11) *The Economist*(2017. 1. 7), "South Africa has one of the world's worst education systems."

12) 남아공의 흑인인구 비중은 76%, 백인인구는 9% 정도임.

13) 이는 남아공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출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로 기초교육, 경제개발, 사회보장, 보건 등에 대한 지출 증가세를 뛰어넘음.

그림 4. 주마 정부 임기(2009~18) 중 주요경제지표



주: 물가지표에서 2017년은 1~10월까지지만 해당됨.

자료: South African Reserve Bank, Quarterly Bulletin, <https://www.resbank.co.za/Publications/QuarterlyBulletins/Pages/Quarterly-Bulletin.aspx>(검색일: 2017. 3. 7); Statistics South Africa, <http://www.statssa.gov.za/>(검색일: 2017. 3. 7)를 종합하여 작성.

■ 특히 전체 수출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인 규제 강화, 광산 인프라 노후화, 노사갈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크게 하락함.<sup>14)</sup>

- 원자재 수출강국인 남아공의 광산업은 1980년도에 GDP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GDP의 약 5% 수준임.<sup>15)</sup>
  - 2000년대에 크게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성장 둔화, 달러 강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1년부터 하향세를 보여 남아공의 총부가가치 중 광물수출의 수익 비중(Mining export earnings per unit of GDP created)이 0.076(2007년)에서 0.068(2016년)로 감소함.<sup>16)</sup>
  - 광산 인프라에 대한 고정 투자금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 감소하였으나 순투자는 광산업의 침체 국면으로 인해 2013년 -2.5%에서 2016년에는 -100%를 기록함.<sup>17)</sup>

14) 남아공의 주요 광물자원은 석탄, 금, 백금족(platinum-group metals), 철광석 및 다이아몬드이며 특히 백금족 금속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96%를 보유하고 있음.

15) 남아공에서는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광산업의 GDP 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총 고용비율도 14% 정도이나 9개의 주(州) 중 North West, Limpopo, Mpumalanga 및 Northern Cape주의 경우 광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남아 있음.

16) "Facts and Figures 2016"(2017), Chamber of Mines of South Africa. p. 6.

17) "Facts and Figures 2016"(2017), Chamber of Mines of South Africa. p. 3.



- 특히 주마의 측근인 즈와네가 광물자원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심각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7년 6월 흑인 보유 지분을 30%(현재 26% 수준으로 추정) 이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채굴 면허 갱신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업헌장(Mining Charter)을 발표하여 광산업계의 반발을 일으킴.
- 남아공 광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광업회의소(Chamber of Mines)가 법원에 광업헌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 시행이 유예 중임.
- 반복되는 노사갈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개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음.
  - 2012년 세계적인 백금생산업체 론민의 마리카나 광산에서 일어난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34명이 사망하는, 1960년 이후 최악의 공권력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 2014년 1월부터 5개월간 진행되었던 백금업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남아공의 실질 GDP가 약 0.7% 감소하였고 약 22.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sup>18)</sup>
  - 광산 파업의 여파로 제조업 성장이 정체됨(남아공 중앙은행 발표 2014년 제조업 성장률: 0%, 2015년 제조업 성장률: 0.3%).
- 2008년 남아공 경제를 강타한 전력난 이후 전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2010년 이후 광산업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250% 이상 증가하여 총 지출의 8% 이상을 차지함.
  -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수시로 시행되는 계획정전 때문에 주요 광산업체인 아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시간당 13만 달러의 손실을 입음.<sup>19)</sup>
  - 전체 전력의 95%를 공급하고 있는 국영전력기업인 에스콤(Eskom)이 전력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에 실패하고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소수 집권층의 이익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반복되었음.

■ 주마 前 대통령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경영진에 측근을 배치하고 굽타 일가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흑인차별정책(Apartheid) 이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흑인의 경제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흑인경제육성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을 악용하여 측근을 통해 조직적으로 공기업의 경영권을 잠식하였음.
  - 재무부는 이와 같은 주마 前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감시·관리 기능을 중앙집권화하고자 하였음.
- 주마 前 대통령은 2010년 기가바(Malusi Gigaba)를 공공사업부장관에 임명하고 난 후 주요 공기업의 경영진을 측근으로 교체하거나 경영진 구성을 변경하여 굽타 일가에 유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전체 국영기업 중 공공조달금액이 가장 큰 에스콤(Eskom)과 국영항만철도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의 경영진에 배치된 주마의 측근들은 석탄이나 기관차 조달사업이 굽타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알선함.<sup>20)</sup>
- 또한 조달 감시·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감시·관리 기능을 약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굽타 일가 소유 기업에

18) 광산업계의 지출 중 임금 지출이 약 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Bohlmann, Dixon, Rimmer and Van Heerden. 2014. "The Impact of the 2014 Platinum Mining Strike in South Africa: An Economy-Wide Analysis" *Working Paper 478*. Economic Research Southern Africa.

19) Alexandra Wexler(2015. 5. 8), "Power outages mar South Africa's economic expan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 에스콤(Eskom)과 트랜스넷(Transnet)의 조달 규모는 2010~11년 기준 전체 정부조달 규모의 8.75%와 8.3%임.

대한 이중지원이나 이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조작하는 부정을 저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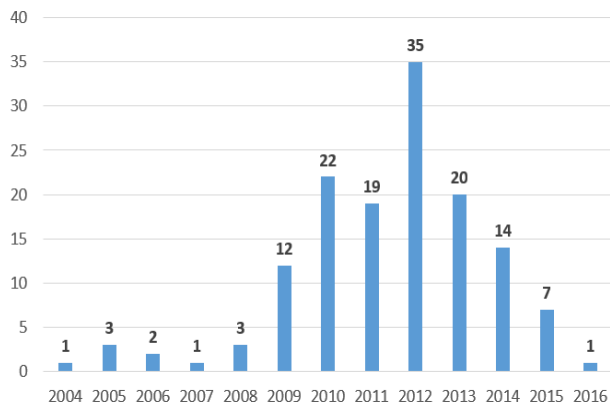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및 공기업 조달과 관련된 사기 및 부패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관련 액수는 14억 달러에 이룸.

■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 남아공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만연한 부패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또한 악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음.

- 한때 신흥시장의 대표주자였던 남아공 경제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주마 정부 9년 동안 급격히 하락함.

그림 5. 공공조달 관련 사기 및 부패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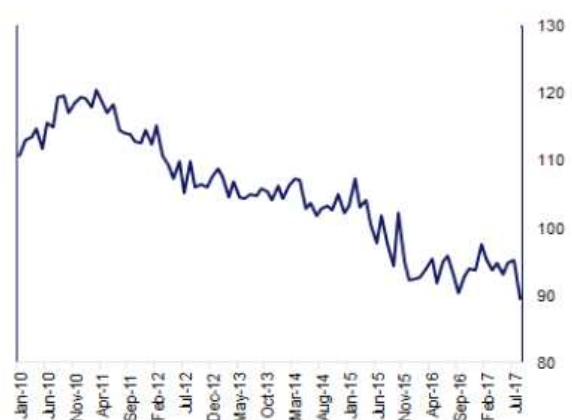
(단위: 건수)



자료: Bhorat et al.(2017), *Betrayal of the promise: How South Africa is being stolen*, Public Affairs Research Institute.

그림 6. 기업경기전망(Business Confidence) 추이

(단위: 지수)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8), *South Africa Country Risk Report*, 2018 Q1.

## 4.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과 당면과제

■ 2월 15일, 차기 대통령으로 부통령이자 새로운 ANC 당대표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가 취임함.

-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은 주마 前 대통령 재선 시기(2014~18)에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나 굽타 스캔들이 터진 이후 주마 前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음.
- 라마포사 취임 직후 남아공 랜드화 가치가 20%가량 상승하며 201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종합 주가지수(JSE)가 2.7% 상승하며 2016년 6월 이래 최대 증가폭을 달성하는 등 금융시장의 환영을 받음.
- 남아프리카공산당(SACP)과 노조회의(COSATU) 등 노동계도 라마포사 취임을 환영함.
- 2월 16일, 2018년 의회 국정연설에서 만연한 부패 척결과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을 주요 목표로 내세움.

표 1.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약력

| 시기        | 주요 활동   |
|-----------|---|
| 1982년     | ▶ 전국광산노조(NUM)와 남아프리카노조회의(COSATU) 출범을 주도함.   |
| 1991~97년  | ▶ ANC 사무총장으로 활동함.<br>- 흑인차별정책(Apartheid) 종식 협상 대표, 제헌의회 의장을 지내며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로 떠오름.                                   |
| 1997년     | ▶ 넬슨 만델라의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ANC 경선에서 타보 음베키 前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정계 은퇴함.<br>- 정계 은퇴 후 각종 사업에 진출하여 막대한 부(개인자산 약 5억 달러로 추정)를 축적함. |
| 2012년     | ▶ 정계 복귀와 함께 ANC 부대표로 선출되고 남아공 부통령으로 지명됨.<br>- 부통령이자 국가발전위원회 의장으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함.                       |
| 2017년 12월 | ▶ ANC 전당대회에서 주마 前 대통령이 지원하는 들라미니 - 주마(Nkosazana Dlamini-Zuma) 후보를 근소한 차이(179표, 3.8%)로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됨.                 |
| 2018년 2월  | ▶ 남아공 의회에서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자료: News 24(2017. 12. 18), "PROFILE: Cyril Ramaphosa, new president of the ANC."<sup>21)</sup>; New York Times(2018. 2. 15), "Meet Cyril Ramaphosa, South Africa's New President and a Mandela Favorit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sup>22)</sup>

## 가. 부패척결 과제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 주마 前 대통령과 굽타 가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지난 2월 14일, 정부의 낙농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굽타형제와 그 측근들이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됨.
- 굽타 가문이 국정농단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상당수가 돈세탁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굽타 가문의 인사개입, 국가재정 유용 등 광범위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주마 前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맞물려 있는데 ANC 내에서 주마의 측근들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음.

21) <https://www.news24.com/Columnists/GuestColumn/profile-cyril-ramaphosa-new-president-of-the-anc-20171218>

22) <https://www.nytimes.com/2018/02/15/world/africa/south-africa-cyril-ramaphosa.html?smid=fb-nytimes&smtyp=cnr>

- **[인적 쇄신]** 라마포사 취임 후 첫 개각에서 10명의 장관을 교체하였지만 ANC 내부에 아직까지 친(親)주마 세력이 견재하고 있어 부패 척결을 위한 인적 쇄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월 26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 신임 당부대표이자 음푸말랑가주 주지사인 마부자(David Mabuza)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주마 前 대통령 시기 내각 인사 중 10명을 경질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함.
  - 굽타 가문에 대한 낙농보조금 불법지원과 에너지기업 헐값 인수를 알선하는 등의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인 즈웨인 前 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반 루옌 (Des van Rooyen) 前 협력거버넌스 및 전통부 장관, 브라운 (Lynne Brown) 前 공공사업부 장관 등 친주마 내각 10명이 경질됨.
  -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인 비리 혐의가 제기되는 마부자를 부통령에, ANC 전당대회 당시 주마 前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경쟁자인 들라미니-주마를 대통령실 조정·계획·평가부 장관에, 굽타 가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기가바 재무부 장관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ANC 내 친주마계 인사도 내각에 등용함.
  - 네네 前 재무부 장관이 복귀하고 고단 前 재무부 장관이 공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라마포사 정부 첫 번째 개각 이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임.
  - 장관 및 부장관이 35명에 달하는 내각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당내 입지가 약한 라마포사 대통령이 정부 고위급 자리를 원하는 당내 인사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이를 시행할지는 의문임.

표 2. 라마포사 신임 내각의 경제 관련 주요 각료

| 직책                                      | 주요 활동   |
|---|---|
| 네네(Nhlanhla Nene)<br>재무부 장관             | ▷ 前 재무부 장관(2014~15)<br>- 주마 前 대통령의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 경영진 교체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질된 바 있음. 경질 과정에서 굽타 가문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 고단(Pravin Gordhan)<br>공기업부 장관           | ▷ 前 재무부 장관(2009~14, 2015~17)<br>-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됨.<br>- 네네 재무부 장관과 함께 라마포사의 경제 정책을 보좌하는 Top 2로 꼽힘.                |
| 라디비(Jeff Radebe)<br>에너지부 장관             | ▷ 前 공공사업부(1994~99), 공기업부(1999-2004), 법무부, 교통부(2004~09), 법무부(2009~14), 대통령실(2014~18) 장관<br>- 라마포사의 최측근으로 남아공 민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내각에서 활동함. |
| 만타시(Gwede Mantashe)<br>광물자원부 장관         | ▷ 前 전국광산노조(NAU) 사무총장, ANC 사무총장  |
| 파텔(Ebrahim Patel)<br>경제개발부 장관(유임)       | ▷ 前 ILO 노동그룹 부의장<br>- 2009년부터 경제개발부 장관으로 역임하며 라마포사와 함께 국가개발계획(비전 2030)을 작성함.  |
| 음키제(Zweli Mkhize)<br>협력거버넌스 및<br>전통부 장관 | ▷ 前 콰줄루나탈 주지사(2009~13), ANC 재무총장(2012~17)<br>- ANC 내 친주마계 인사로 토지권 문제가 심각한 콰줄루나탈 주의 주지사를 역임함.  |

자료: New York Times(2018. 2. 27), "Factbox: Key Figures in South African President Ramaphosa's First Cabinet."<sup>23)</sup>와 Africa Confidential(2018. 2. 27), "Not yet Team Ramaphosa."<sup>24)</sup>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3) <https://www.nytimes.com/reuters/2018/02/27/business/27reuters-safrica-politics-cabinet-factbox.html>

- 라마포사 대통령의 ANC 내 입지가 불안정하고 과거 개인 관련 비리 혐의가 제기된 적도 있어 남아공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라마포사 대통령은 주마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주마 前 대통령의 비리 혐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마 前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전까지 부패 문제에 대해 침묵한 바 있음.
- 라마포사 본인이 설립한 투자전문회사 상투카그룹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불법 혐의로 기소되는 등 개인 관련 부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과거 영국계 광산업체 론민의 이사로 마리카나 백금 광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34명 사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나. 당면 경제문제

- 라마포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장의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의 극복과, 식민시기와 흑인차별정책(Apartheid)의 유산인 불평등 해소라는 양대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실업문제]** 남아공의 실업률은 주마 정부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4/4분기 기준 26.7%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제외한 뚜렷한 대응책을 펴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물가인상률이 안정선(2017년 말 기준 4.4%)에 도달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여지는 있지만 미국발 (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자 유출 가능성과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신흥시장 침체 우려가 상존함.
  - 라마포사 본인이 부통령 당시 주도했던 국가최저임금 의무화 조치(2018년 5월 도입)가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음.
- **[정부재정문제]**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직후 주마 정부하에서 악화된 공공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재정지출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ANC 지지층인 흑인 빈곤층 및 중산층의 핵심 요구인 주요 복지정책의 시행을 미루기는 어려워 향후 추가 재정지출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부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증세로 인한 투자와 소비 감소가 우려됨.
  - 1993년 백인정권하에서 도입된 부가가치세를 25년 만에 인상(14% → 15%)하여 추가세수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함.<sup>25)</sup>

24) [https://www.africa-confidential.com/article-preview/id/12259/Not\\_yet\\_Team\\_Ramaphosa](https://www.africa-confidential.com/article-preview/id/12259/Not_yet_Team_Ramaphosa)

25) PwC 추정결과 약 220억 랜드의 추가세수가 예상됨(Bloomberg, 2018. 2. 19), "Zuma Budget Hole Leaves South Africa With Tough Tax Choic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2-18/zuma-budget-hole-leaves-south-africa-with-tough-decisions-on-tax>.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함께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만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부정적 반응임.<sup>26)</sup>
- 비만이나 당뇨병 예방을 위해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에 부과되는 설탕세도 4월부터 도입됨.
- 최근 부채 축소를 위해 향후 3년간 850억 랜드 규모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예정된 각종 복지정책의 시행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 주마 前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단독으로 발표한 빈곤층 및 중산층에 대한 무상고등교육정책(향후 3년간 570억 랜드 소요 예상)이나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국민건강보험제도(2010년 정부 추정 2,500억 랜드의 예산 필요)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무디스를 제외하고 투자부적격 상태로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부재정이 더 악화될 경우 랜드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까지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함.
- 랜드화 표시 국채까지 투자부적격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국내 기업의 재무비용이 급상승하며 외자유출이 급격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 경우 남아공 국채가 시티그룹 세계국채인덱스에서 제외되면서 약 140억 달러의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예상한 바 있음.

■ **[토지 개혁]** 최근 남아공 의회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하고 재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 추진 결의안을 채택하며 흑인차별정책(Apartheid)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토지 개혁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난 2월 27일, 좌파 성향 제2야당인 경제자유전사(EFF)가 발의한 무상토지몰수조치 토지 개혁안(land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에 대해 ANC가 동참하며 찬성 241표, 반대 83표로 통과됨.
- 1913년 남아프리카 원주민토지법에 따라 흑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강탈되어 민주정부 출범 이후 ANC는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에 대한 흑백간 불균형(흑인차별정책(Apartheid) 종식 당시 백인이 약 85%의 토지를 소유) 해소를 약속하였으나 백인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인해 급진적 토지 개혁을 시행하지 못했음.
- 2017년 2월 토지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몰수하는 토지 개혁 법안에 대해 주마 前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주마는 입장을 바꾸어 무상몰수 방안을 포함하는 토지 개혁을 역설하였고 최근 12월 ANC 전당대회에서 무상몰수 재분배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됨.
-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 전당대회에서 경제를 해치지 않고 농업생산과 식량안보 유지를 전제로 토지무상수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번 결정에 따라 의회 헌법검토위원회는 8월 말까지 토지수용 관련 헌법 개정사안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서 ANC가 민주정부 출범 이후 최저득표율을 기록하고 EFF와 제1야당 민주동맹(DA)의 연정으로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등 주요 지역 단체장을 빼앗긴 바 있는데, 토지 개혁안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ANC의 주요 지지층인 흑인 저소득층의 주요 관심사임.

26) IOL(2018. 3. 1), "Cabinet considering expanding zero-rated VAT basket." <https://www.iol.co.za/business-report/economy/cabinet-considering-expanding-zero-rated-vat-basket-13540239>.

- 시슬루(Lindiwe Sisulu)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짐바브웨식 토지 개혁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백인 농장주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이번 토지수용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 2017년 2월에 발표된 남아공 정부 토지조사에 따르면 현재 97%의 토지를 농장 및 영농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보유 경작지 3,700만 헥타르 중 73%를 백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산업 활성화]** 농업, 광업 등 주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마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 및 쟁점사안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광업현장의 개정을 공언하였으나 광물자원부 장관에 전국광산노조(NUM) 사무총장 출신 만타시(Gwede Mantashe) 前 ANC 사무총장을 지명하며 친기업 입장에서 광업 관련 규제를 해소하지는 않겠다는 방향임.
- 농업 분야는 2017년 남아공 경제를 약 2% 성장(2017년 남아공 경제 전체 경제성장률은 1.3%)시킨 핵심 분야지만 최근 3년간 농업 중심지인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체 농산물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는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주에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남아공 제2의 도시인 케이프타운에서는 수개월째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며 5월경 완전단수 가능성도 제기됨.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가 현 사태의 주요 원인이지만 야당인 민주동맹(DA)이 집권하고 있는 케이프타운 시의 수원(水原) 다양화 정책 실패와 야당 지역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외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전력난 해소]** 2008년 전력난 이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광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력 복원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기됨.

- 주마 정부는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중장기 전력수급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재정문제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이로 인해 2017년 말 에스콤의 경영진이 교체되었으나 최근 3대 국제신용평가사 S&P, 피치, 무디스는 에스콤의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하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에스콤의 재정 악화로 인해 통합전력개발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에 따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차질을 빚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전력망 개선을 위한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최근 신임 라테베(Jeff Radebe) 에너지부 장관은 당분간 에스콤을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밝힘.

■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이후 랜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신뢰지수도 최근 2년 중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올해에는 오랫동안 악화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우선되기보다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ANC가 불과 1년 남짓 남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개혁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악화된 정부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세 증세 등의 조치를 발표한 만큼 ANC 지지층이 요구하는 복지 확대와 토지 개혁, 흑인 경제참여(BEE)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흑인 빈곤층 및 중산층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외국인 투자 감소와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정책기준금리 인상, 남아공 경제와 밀접한 영국의 EU 탈퇴 현실화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대외변동성이 심한 남아공 금융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전망]** 주마 前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시장의 지지를 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취임으로 남아공 경제에 대한 단기전망은 긍정적이거나,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을 진행하여 잠재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2019년 5~8월경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ANC의 과반 득표와 라마포사의 재집권에 달려 있음.<sup>27)</sup>

- 여당 ANC는 현재 압도적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16년 지방선거에서 54%에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지지율로 제1야당 DA의 주요 지지기반인 케이프타운은 물론 경제중심지 요하네스버그와 수도 프레토리아의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음.
  - 제1야당 DA가 친시장주의 노선으로, 제2야당 EFF가 급진적 경제개혁 노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만큼 향후 총선에서는 인종보다 경제이슈 중심의 투표행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ANC로서는 불리한 요소임.
  - 남아공의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NC는 1년여 남은 총선 전까지 단기경기부양책, 토지 개혁, 무상고등교육 등 전통적 지지층에게 우호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압도적 과반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타 우호적 정당과 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FF가 이미 전통적 ANC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고, ANC와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남아프리카공산당(SACP) 또한 선거 독자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ANC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조건임.
  - 지난 지방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EFF가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친시장주의 정당인 DA와 연정을 합의한 바 있음.
  - 2017년 10월 주마 前 대통령은 30년간 AN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온 SACP의 당대표 은지만데(Blade Nzimande)를 고등교육부장관에서 해임하였고, 이에 SACP는 주마 前 대통령이 약속했던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며 주마의 퇴진을 요구하여 양당의 갈등이 발생함.
  - 현재까지 SACP는 라마포사를 지지하고 있고 라마포사 역시 은지만데를 장관으로 복귀시키면서 양당 관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SACP가 독자노선을 펼쳤던 만큼 2019년 총선을 앞두고 ANC의 SACP와 EFF에 대한 우호관계 형성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7) 남아공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됨.



- 라마포사 대통령의 ANC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反)부패, 반(反)주마 노선을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12월에 치러진 ANC 전당대회에서 라마포사와 들라미니-주마 당대표 경선에서의 표 차는 불과 179표(3.8%)였으며, ANC 고위당직선거에서도 마부자 부의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에 친주마계 후보가 당선된 바 있음.

■ **[시사점]**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제2경제대국이며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라마포사 신정부와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함.

- 이번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은 1994년 남아공 민주정부 출범 이후 남아공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과이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상당수 제거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됨.
- 남아공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산업화의 진전을 이루어낸 국가로, 개방된 금융시장과 비교적 선진적 경제정책 시스템을 갖춘 만큼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은 중장기적인 남아공 경제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라마포사 정부 출범으로 인해 남아공 경제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라마포사는 광업, 자동차, 철강 등 남아공의 주요 제조업이나 금융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남아공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노동생산성은 낮으나 미국이나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며 향후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따라 중장기적 역내 수요가 예상되는 이점이 있음.
- 남아공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유통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큼.
- 남아공 경제회복에 따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전력산업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한국기업의 전력산업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함.
- 2011년 한·남아공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지난해 남아공 법원은 이를 비롯하여 미·남아공, 러·남아공 협정 등 주요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라마포사 정부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므로 한국의 원전 관련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전력망 개선 사업의 경우 향후 남아공 경제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남아공 정부의 정책적 요구도 크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올 5월 예정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부산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아공은 올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BRICS 의장국이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 아프리카 연합(AU)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CFTA)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남아공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였으나 타당성조사기관 지정 절차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KIEP**